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 목회자의 새해 기원

새 시대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이 중 윤 위임목사

천지의 대 주재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약속은 힘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어 인간의 바벨탑과 이데올로기를 무너
뜨리셨으며 주님의 은총은 확실하여 열방이 주 앞에
무릎꿇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을 돌리나이다.

사유하심이 많아 주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지요./
눈을 열면 보이는 것이 죄요, 귀를 열면 들리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소리뿐이며 입을 열면 원망과 시비와
증오와 분노가 메아리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열악함
과 불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박한 눈망울들이
목을 때어 연기처럼 사라지고 부푼 꽃망울 여러디 여
린 소녀들이 사정없이 유린을 당해도 아픈 가슴 달랠
길 없어 먼 산만 바라볼 뿐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건만 법이 있
어 무엇하며 권이 있어 무슨 소용이리이까. 일가족이
무참히 생매장을 당해도 오열조차 끊어진 지 오랜 무
감각한 이 백성의 굳어진 심령을 주님이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금슬을 베풀어 주옵소서. 뿌리뽑
힌 나무 같고 비 없는 구름같이 생기 잃은 이 백성
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유의 은총을 부어 주사 물과 성
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을 저버렸던 선조의 불신앙이 3, 4대를 타고 이 시대
에 악으로 열매를 맺었나이다. 주의 사유하심이 아니
고는 살 길이 없사오니 민족의 검붉은 죄는 씻어 주시

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악함은 피흘리신 주님
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사랑하심이 많아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아버지이지요./
주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무엇인들 주시지 아니하시리
이까. 지난 해에는 우리 교회 위에 은총을 쏟아 부으시
사 내적으로는 질적 성장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이 복
음을 전세계에 새벽 날개를 태워 흩어 보내셨나이다.
뿌린 씨앗 열매로 거두시고 주신 말씀 자들의 영혼에
양식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만복의 근
원 아버지이지요./
금년에도 새 능력을 부어주시사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의 산을 이루어 소
망으로 참고 견뎌 승리하게 하옵소서. 40은 안에서
쓰고 60은 밖으로 내어 보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양들은 배불리 먹
고 마실 양식이 있고, 목자들은 노래하는, 하나님 보
시기에 아름답고 신성한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강단
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명강은 교회를 돌아 먼 이방
까지 흘러가게 하옵시고, 기쁨과 찬양의 소리 가득한
다락방들은 예루살렘 같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아버지이지요./
어린 송이꽃들은 내일의 꿈을 안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글어가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고달픈 병든 자와 장
애인들은 마음과 영혼이 한없이 자유롭게 하옵소서.
시기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힌 정신적 노예들은 사슬
을 끊고 사랑과 화목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기쁨
부어 세우신 교역자와 장로님들에게는 견고한 진을 파
하는 능력을 주옵시고, 눈물로 무릎을 적시는 권사님
들에게는 기도의 힘을 7배나 더하옵소서. 봉사를 위
해 세우신 제직들에게는 깨끗한 손과 부지런한 발을
주옵시고, 교회를 지켜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섬기
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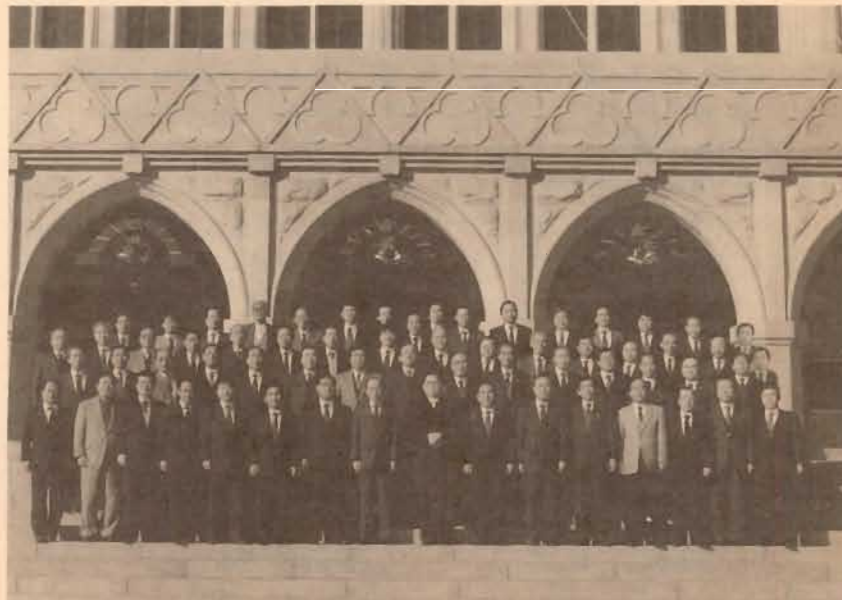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지요./
주님의 정결한 생명샘에 자량과 안일로 때묻은 양심을
닦겠사오며, 성령의 은혜의 날개를 타고 진리의 길로
만 달아가겠나이다. 번영과 평안이 올 때에는 더더욱
검손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재다짐하면서 주님의 복
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나이다. 일어 붙은 이북 강토
십자가 보혈로 풀어내며 싸늘하게 식어버린 북방에도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케 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지요./
그리하여 새 시대에 새 노래를 우리 모두 힘차게 부르
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한 해 동안 하
나님의 뜻이 충현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새해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역자 일동



장로 일동



이 중 운 목사

성경 강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홀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 11:17-26)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비로소 그들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마르다가 푸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섞여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께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저 옛날의 마르다와 마리아 둘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이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당장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급해 합니다.

신앙은 항상 이성의 세계를 뛰어 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논리로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묶어 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를 장례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까요. 혹시 사도 요한이 착각을 하고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출발했을 즈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씨는 몹시 더워서 우리 나라처럼 3일장이나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날로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때문에 나사로의 시체도 죽자마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후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장 뛰어가나 이를 후에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뿐이고 거기에는 기적밖에 다른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불평을 늘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마르다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유감스럽게도 부활의 개념은 빠져 있습니다. 그

것은 24절에 나와 있는 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 11:24)

마르다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안타까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2. 실천적인 신앙

머리로만 알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손과 발뿐 아니라 몸 전체가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헌신이라고 하면 이유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런 것은 마치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갖가지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들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를 현실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자기 눈앞에 놓인 상황에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주님과 함께 있는 생명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형편없는 신앙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매우 모순이 되는 것 같으면 서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변적인 신앙 버리고 몸 전체로 실천하는 신앙 가져야

사람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는 회의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녀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약한 신앙을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큰 비극에 처한 사람에게 책망은 아무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사랑’이란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요 11:25, 26)라고 하시면서 이 기회에 마르다로 하여금 자기를 더 배우게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은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약해질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들도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요 11:25, 26).

우리들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몸은 죽으나 영혼은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26절 하단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믿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과 믿음을 착각해선 안됩니다. 이것을 착각할 때 스스로 속일 수도 있고 또 속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 흔들리면 안됩니다. 약해져도 안됩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허약한 사람은 바람 소리에도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닦을 굳건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지 않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란 구체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 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 신경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살아나신 것과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그 모든 것들을 글자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의지이고, 또한 하나님되심,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입으로만 떠드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91년도 우리의 소망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의 영광 위해 헌신 다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

김 영 구 목사 (제8 교구 담임)

다사다난했던 90년도를 보내며 새로운 91년을 맞이하는 지금 웅지 기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91년을 맞이하여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부에 대한 각오는 새신자들의 신앙이 견고히 뿌리박힐 수 있고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연결시켜 일상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신자들의 신앙 상담과 기도, 그리고 권고에 여념이 없으신 교사들에게 그들 자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 그들이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와 동구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 대해 피곤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감당하고 교회의 비전과 좌우명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한편, 가정에서는 두 자녀들에게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고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을 살펴본 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인격자로 키워야 되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이 정 구 집사 (임마누엘찬양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있다면 늘 감사하며 찬양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밑거름이 되어 이루어지는 하루하루는 정말 저에게 기쁨을 안겨 줍니다. 제일 쉬운 것도 같은 생활이지만 제일 지키기 어려운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활 가운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생활 가운데의 신앙 생활이 밑받침이 되지 않는 한 형식적인 예배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애 아무리 많은 봉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뜻이 없고 그곳에 참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주님은 결코 받으시질 않을 것입니다. 봉사하면서도 주님이 살아 계심을 수시로 느끼면서 기도드리고 싶은 삶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생활이야말로 제가 이번 해에 생활하여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비중이 큰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하루하루를 경건히 지내면서 밝아오는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세례받기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칭찬 받는 자 될터

허 회 석 성도 (새가족부)

오 자 경 성도 (청년1부)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 되었으나 얼마 전에 충현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교회 가까이 집에 있고 또 이모님의 권유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 맹목적인 면이 없지는 않지만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기 위해 서두르는 부지런함이 생겼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혼자서만 끙끙 앓는 옛날과는 달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초신자의 입장에서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러

나 91년도에는 기도를 생활화하여 기도의 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현교회에 오기 전에 작은 교회를 몇 번 다녀본지라 가족적인 면이 항상 기억에 남아 큰 교회에 오는 것을 약간 꺼려했지만 체계적인 학습 방법과 여러 많은 성도들간의 교제를 보고서 다행스럽기도 했고 기뻐했습니다.

새해에는 주일 성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91년을 맞이하며 가지는 다짐은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태함에서 깨어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저의 각지고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깎여서 둥글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함께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포부를 가져 봅니다.

그 방편의 일환으로 찬양대와 합시바들

주님께서 제게 맡겨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이 따뜻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제 자신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씁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 91년을 맞이하여 저를 비롯한 충현의 여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래를 대비한 끊임없는 수고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기 등

성숙한 신자



윤 명 식 장로

어떤 의미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자"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표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우리들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시 새 해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의 성숙도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라는 작은 사회는 불신자들이나 그들이 속한 불신 사회보다는 어느 의미에서든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전도도 가능할 것이다.

불신자들이 교인을 불신하는 지금과 같은 세대에 어

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일반 불신 사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사고(思考)가 있고 행동도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심 없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나 세속적인 방법을 모두 불식시키고,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성숙한 신자다운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와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는 흥해작전, 제자훈련, 충현 집포지움, 충현 올림피아,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문선명 집단 반대 운동, 속사도행진운동, 아시아 선교대회, 목회자 세미나, 김치(KIMCHI) 세미나, 공산권에 성경, 찬송가 보내기 운동 등 참으로 많은 행사들을 벌여 왔다. 우선 머리에 스쳐가는 행사만 해도 이 정도이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치르면서 우리들은 과연 적절한 성숙을 이루어 왔는지, 또 얼마만큼 우리들의 모습이 성숙한 신자로 달라졌는지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행사들을 치르고 난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행사가 끝나면 금방 식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제 2 회, 제 3 회 하는 식으로 타성에 젖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앞장선 사람들은 열심인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빈정대지는 않았는지, 혹은 앞장선 사람들은 과연 공의롭고 사심 없이 하였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새해에도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다. 이 모든 행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계획된 행사들이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음 가짐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에 "성숙한 신자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해 보자.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모두 "모범적인 교회"의 성도답게 전설로 "성숙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 가자.

다음호 세기등은 이용선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91년도 첫 성찬식 거행

우리 교회는 91년도 첫 주일인 오늘(6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갖는다. 성도들은 이종윤 위임목사가 집례하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

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고 마시면서 급년 한 해 동안 모범적인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될 것이다.

송구영신예배 은혜 중에 마쳐

우리 교회는 지난 1일 0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다. 신년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촛불예배로 진행되었다.

이 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는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장로·권사·안수집사 대표들이 교회와 국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감사와 헌신과 결심”의



기도를 하였다.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91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였다.

청지기 수련회 시작되다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청지기 수련회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있었다.

개회예배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1991년도 목회 지침을 발표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출전수반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도회와 토의 순으로 밤늦게까지 진행된 이 수련회에서 ‘협력·봉사·화목을 이루기 위하



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특히 새 해 첫날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련회에 참석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의 헌신과 결의가 재확인되었다.

이 청지기 수련회는 일정에 따라 직분별로 계속될 예정이다.

90년이 저물어 가던 지난 달 30일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가졌다.

우리들이 이날 찾아가는 곳은 심신장애인 복지촌인 “우성원”이다. 이곳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의지할 데 없는 심신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의 터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사랑의 구체적 실천’에는 소홀했던 우리들에게 이들과의 만남은 실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 봉사 현장

심신장애인 복지촌 우성원과 자매결연 맺은 청년3부

홍 윤 석 성도

우성원은 18세 이상 50세 이하의 심신장애인 백 40여명을 보살피고 있는데, 이들은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장애(정신박약·자폐증·농아 등)로 고통받고 있었다.

우리 청년3부가 심신장애인을 돕기로 결정한 것은 이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비해 더욱더 소외되고 있고 사랑과 봉사의 헌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년부에는 전통적으로 ‘밀알 헌금제도’가 있어 매달 자원하는 심정으로 회비를 모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해 왔다. 이는 충현교회 3대 목표 중의 하나

인 ‘빈약한 자 구제’를 실현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제22기 면려회(회장 정병국)는 “그리스도인의 관심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돌아보며, 불우한 이웃이 바로 내 형제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자”는 대원칙을 세우고 ‘밀알회비’를 적립해 왔다.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허사. 진실로 한 알의 밀알일지라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곳을 수소문하였다.

나이는 먹었지만 정신 연령이 5~10세에 불과한 그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따돌림받는 그들의 삶.

우리는 그들의 모습과 생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 동안 너무도 안이했던 우리들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좀더 일찍이 이곳에 왔어야 했는데...” 하는 반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었다. ‘믿음직한 아버지’와 ‘인사한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했다.

원장님으로부터 우성원의 실정



을 전해들은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기타 반주에 맞추어 복음송을 기쁘게 부르고, 신나는 율동도 곁들였다.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써 도와 주겠다는 뜻으로 자매 결연을 맺었다. 그들은 우리의 조그만 의지를 깊은 감사로 받아주었고,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라며 울먹였다. 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떠나면서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함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

다행히 우리가 알게 된 우성원 원장인 최정문 장로님이 김장인 원로목사님과 고려신학교 동기동창으로 친분관계에 있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우성원 방문을 준비했다. 위문품으로 라면, 꿀, 양말을 마련하고 매달 지원해 주기로 한 지원금을 준비했다. 또한, 그들과 저녁식사(떡국)를 함께 하기 위해 선발대로 자매 몇 사람을 보냈다.

행사 당일, 회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60여 명의 인원이 우성원 방문길에 나설 수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주를 잘 관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 3) 하나님의 섭리: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창 1:29,30). 지금도 온 우주를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창 2:3).
- 4) 결론: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인간중심주의, 자연보호, 자원의 고갈, 빈부의 격차, 복음화 등의 과제를 말씀에 의지하여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문답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3. 우리들은 자신과 우주를 왜, 누구를 위하여 가꾸어야 합니까?

토의

1.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 지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을 나누어 봅시다.
3.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를 발표해 봅시다.

기도

1.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2.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나라의 평안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2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

본문: 창세기 1:1~2:3

찬송: 40, 78

본문연구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류와 우주의 기원에 관한 많은 연구와 주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장의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인간중심주의’와 ‘자연 파괴’를 초래하였고, 인류에게 삶과 역사의 진정한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 1) 인류와 우주의 기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이 말씀은 우주는 그 시작이 분명히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 2)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창 1:28).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자신과 우